



8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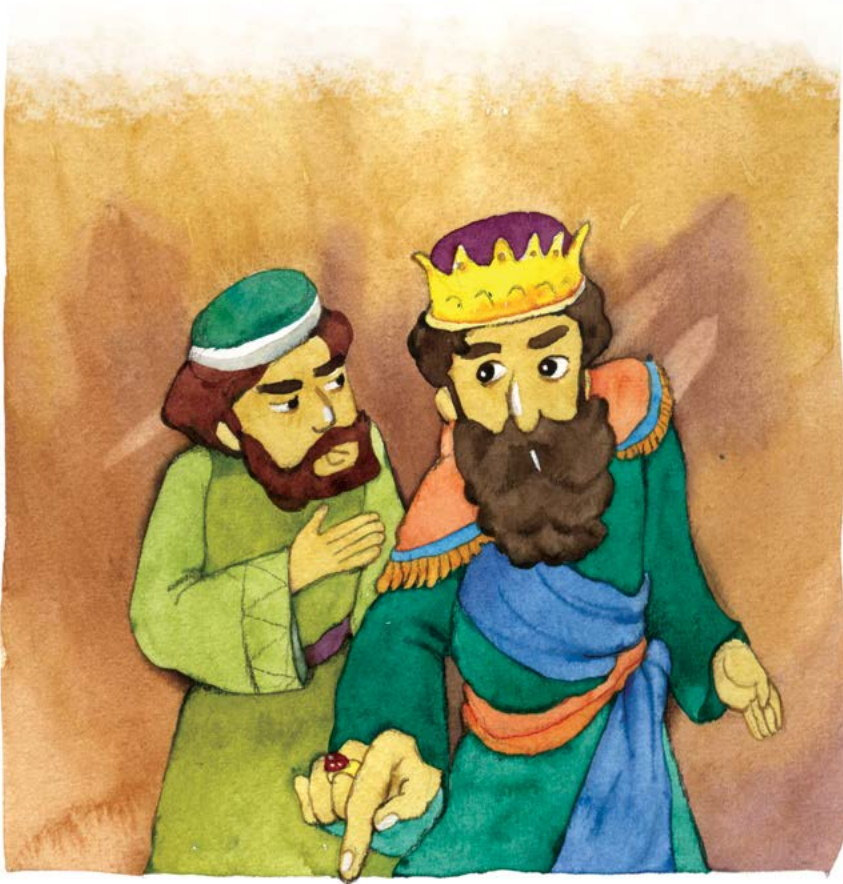
바벨론 군대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끌고 갔어요.

바벨론 왕은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가 말했어요.

“너희가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왕이 크게 화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왕의 신하가 허락해 주었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하게 해 주셨어요.



이렇게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무척 지혜로웠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높은 신하로 삼았어요. 하지만 다른 신하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왕은 다니엘만 좋아한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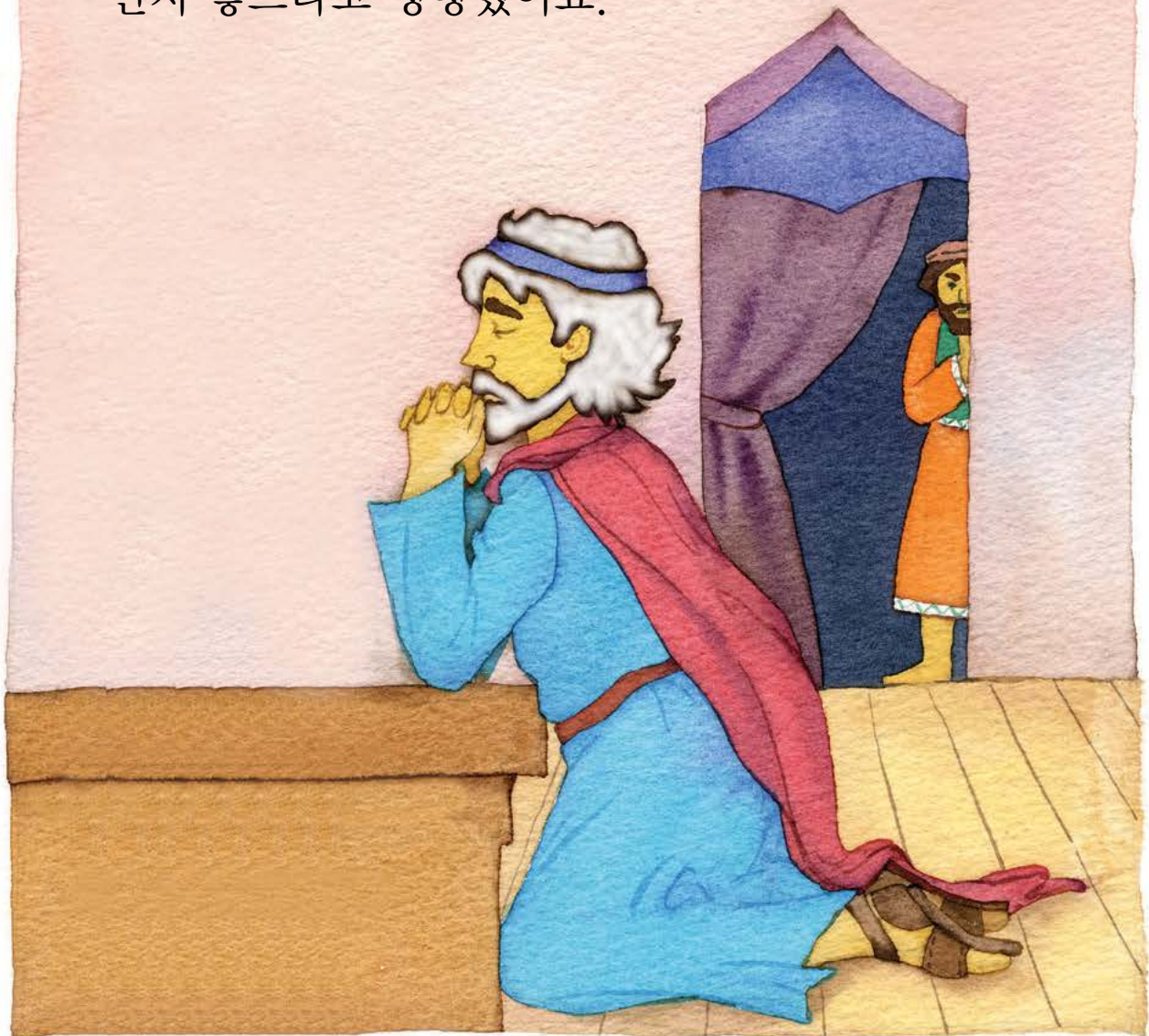
신하들은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 넣으세요.”

왕은 나쁜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신하들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왕이시여! 다니엘이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다니엘이?”
다니엘을 사랑한 왕은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다음날 아침, 왕은 일찍 일어나서 사자 굴로 달려갔어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 주셨느냐?”
놀랍게도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왕은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생각하는 아이

남우는 자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지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무슨 기도를 하세요?” “궁금하니?”

“네, 제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우야, 만약 남우가 엄마랑 하루 종일 한마디 말도 안 한다면 어떨 것 같니?” “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 기도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야. 남우가 엄마랑 얘기하듯이 솔직하게 어떤 것이든지 말하면 돼.” “네!”



즐거운 활동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나요? 나의 기도를 써 보세요. 부모님의 기도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도를 써 보세요.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다니엘 6장 10절

다시 쓰기

--	--	--	--	--

--	--	--	--	--

--	--	--	--

--	--	--	--	--	--	--	--	--

선생님께

부모님께